

[큐티상담칼럼] 매일 큐티를 하는데도 어려워요..

라채광 집사/ 2002

/ 매일 한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감추세요.

그대로 살아 보세요,

이것이 큐티의 진수입니다 /

큐티는 자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많은 듯합니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

첫째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문학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 의미가 주어져야만 뜻을 갖는 사상도 아닙니다. 말씀은 스스로 역동하는 인격입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을 세워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 심령을 해부합니다. 우리 혼과 영을 통찰하며 관절과 골수의 숨은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말씀이 온유히 역사하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이 인격이라는 사실에 주의한다면 당연히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외아들의 순결한 피가 묻은 십자가 앞에 내 교만과 자랑과 연민을 내려놓겠습니다. 조용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해서, 매일 새로운 길을 열어 보여줄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높이면 말씀이 우리를 품을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 잠 4:8)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

둘째는 너무 많은 말씀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시는 방법은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설교말씀, 그룹 성경 공부, 개인 성경 공부, 큐티가 그것입니다. 이를 말씀 4형제하고도 합니다.

설교말씀은 포괄적이지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룹성경공부는 주제가 보편적이고 공동체적이어서 텍스트를 잘 분별하게 합니다. 개인성경공부는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큐티는 설교나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교제의 한 순간일 뿐입니다. 이 교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임재의 황홀함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만 너무 많은 말씀을 먹고서 지식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밴쿠버에서 미시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만난 캐나다 할머니 한 분과 큐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할머니 무릎에서 큐티를 배웠답니다. 매일 아침 적당한 양의 말씀을 할머니와 함께 읽고 아무도 모르게 본문 중 한 구절을 마음에 숨긴 뒤 하루종일 품고 지냈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한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감추세요. 이것이 큐티의 진수입니다 가장 쉬운 큐티를 복잡하게 강의해온 저를 부끄럽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는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말씀을 연구하기보다 작은 말씀 한 조각이라도 마음 깊이 묻고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리라 여겨집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